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광주·전남 방역 사활 걸어야

코로나19 대유행 조짐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걸릴 수 있어
광주 22일 하루 17명·순천·진도·광양·화순 등 확진자 쏟아져
광화문 8·15 집회 관련 확진자 지역내 '조용한 전파' 우려
시도민 기본 방역 지침 준수만이 대유행 막는 유일한 길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가 광주·전남 등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2차 대유행'에 대한 공포감이 번지고 있다. <관련기사 2·3·4·6·7면>
조급해진 정부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확진자 발생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주내로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생활 속 개인 방역 지침 준수가 절실하다.

광주·전남에서도 유흥업소발 대규모 집단 사태를 시작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보전초, 파출소 등 공공기관, 전남대학교 등 교육기관, 학습지 콜센터, 물놀이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쏟아짐에 따라 지역민들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의 '고위험시설'인 클럽 등은 2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모임도 금지되고, 프로 스포츠는 관중 없이 치러진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금의 확산세를 조속히 꺾지 못하면 미국·유럽이 겪은 것과 같은 대유행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인식이 깔려있다.

전국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21~23일 사흘동안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대구 집단 감염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전남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광주에선 22일 하루에만 17명(해외유입 2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누적 확진자(23일 오후 6시 기준)는 279명이다. 지난 12일 이후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도 26명으로 늘었다. 물놀이 시설인 중흥골프장과 관련 확진자는 3명이며, 학습지 관련도 6명이다. 최근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도 모두 12명에 이른다.

특히 8·15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이날 하루에만 7명이나 쏟아져 9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들이 지난 15일부터 일주일 넘게 일상생활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지역내 '조용한 전파'가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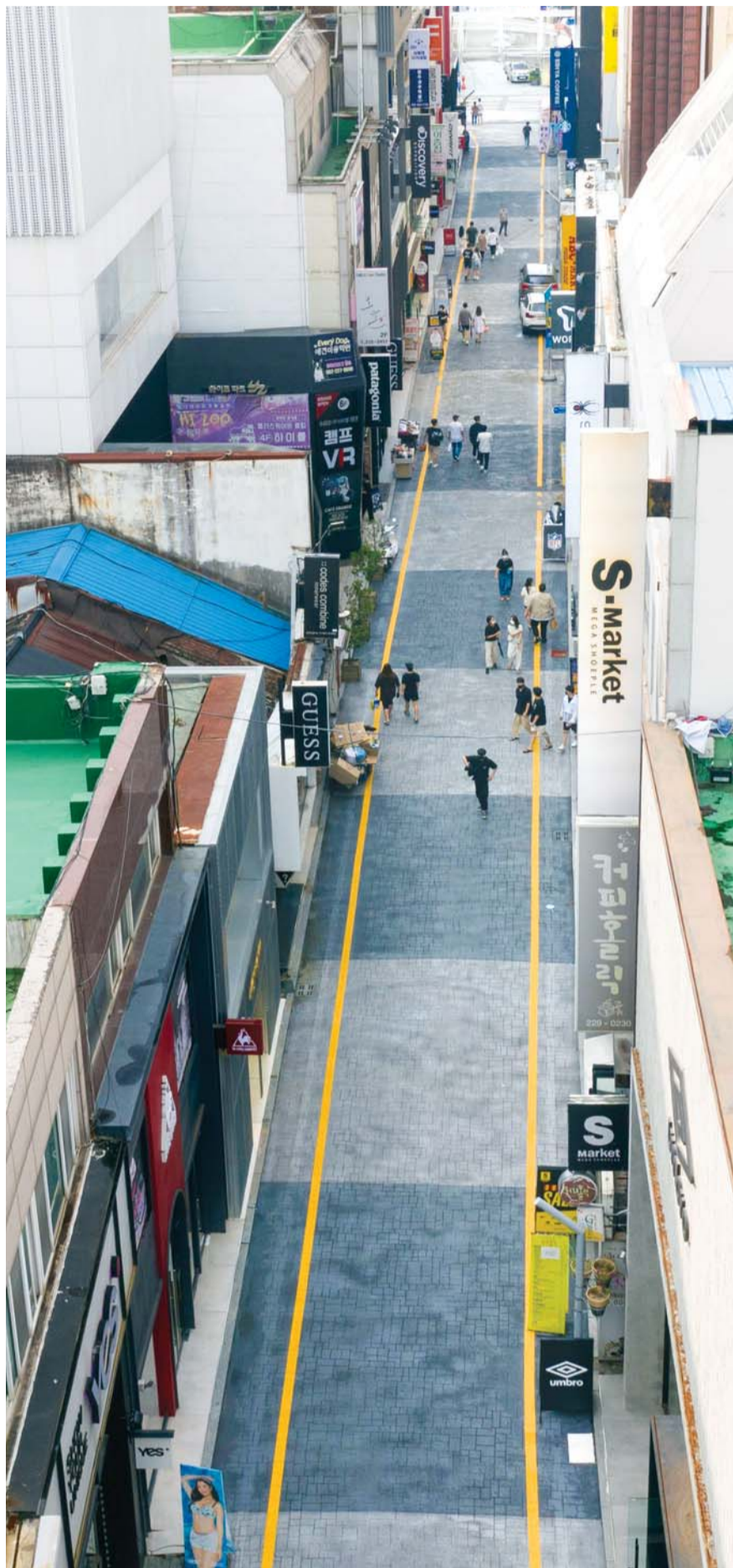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가 첫 발생한 지난 2월 3일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특히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손씻기와 사람간 거리 두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고 호소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꼽혔던 전남도도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 20일 밤부터 23일 오전까지 사흘새 확진자 30명(전남 51·80명)이 추가되며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순천 14명, 광양 6명, 화순 3명, 무안·진도 각각 2명, 나주·곡성·영광 각각 1명이다. 확진자가 집중된 순천에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수사관 등이 파견돼 전남도·순천시 방역당국과 함께 확산세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산한 총장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들어간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변화가인 총장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현배 choi@kwangju.co.kr

전공의 무기한 파업... 대형병원 의료공백 우려

의협, 긴급 간담회 제안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모든 연차의 전공의들이 23일 업무에서 손을 뗐다.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파업이어서 대형병원의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6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의 제2차 전국 의사총파업에는 전공의 뿐만 아니라 전임의, 봉직의 등도 가세할 전망이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재확산하는 가운데 의료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의협이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긴급 간담회 개최를 제안하면서 막판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 22일 3년차 레지던트에 이어 이날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지 파업에 참여했다.

응급의학과는 병원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만 이미 21일부터 모든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이로써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모든 전공의가 병원 밖으로 나와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

전공의 업무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임의, 봉직의, 개원의 등 의사 전 직역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의료시스템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대한전문의협 의회는 24일부터 차례로 단체행동을 시작해 26일에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전임의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한병원의사협회 역시 봉직의들의 '투쟁'을 공식화했다. 봉직의는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를 일컫는 말로, 의사 직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비 의사들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은 국가의사시험 거부, 동맹 휴학 등으로 의사 표시를 진행 중이다. 국시 거부로 인해 내년 초 3000여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채희중 기자 chae@연합뉴스

태풍 '바비' 북상 ... 26일 한반도 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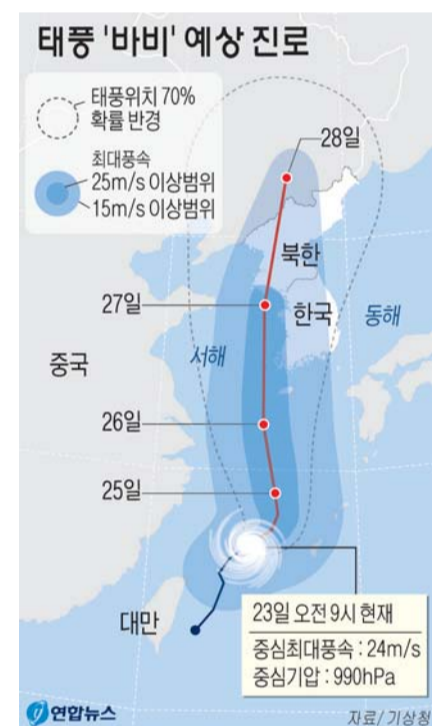
최대 150mm비 예상

최악의 물난리와 코로나19 지역 내 대규모 확산을 겪고 있는 광주와 전남이 태풍 북상 소식까지 겹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광주와 전남도는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복구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태풍으로 또 다시 재해 피해가 겹칠 것으로 크게 긴장하고 있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대만 타이페이 동북동쪽 약 280km 해상에서 제8호 태풍 '바비'가 시속 14km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90hPa, 강풍 반경은 약 240km, 태풍 중심의 최대 풍속은 시속 86km다. 이 태풍은 오는 26~27일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됐다.

태풍은 26일 오후 서쪽 해상을 지나 같은 날 밤 서해 남부 해상으로 이동하며, 27일 오전 서해 중부 해상까지 북상하겠고 27일 오후 북한 황해도 부근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분석됐다.



태풍의 이동경로에 가깝고 지형의 효과를 가장 많이 받는 전라도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인화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코로나 사태 자동문도 팔꿈치로 눌러 ▶6면
- 오심·무덤점에 속터진 광주의 밤 ▶18면
- 유네스코 창의도시 - 이천공예도시 ▶22면

#PlayByYourRules

The New A-Class Sedan & The New CLA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종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A 220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4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2.7km/ℓ(도심연비: 11.2km/ℓ, 고속도로연비: 15.2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35g/km · A 250 4MATIC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15kg, 자동7단), 복합연비: 11.6km/ℓ
 (도심연비: 10.4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48g/km · CLA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50kg, 자동7단), 복합연비: 11.5km/ℓ(도심연비: 10.3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배출량: 15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